

잠재평균 분석을 통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차이검증

*문 선 호 (부경대학교) · 이 순 환 (IUPUI)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양스포츠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과 국가 발전의 촉진제로 이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는 해양스포츠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근모 등, 2009).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스포츠를 활성화시 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보트쇼, 국제요트대회, 해양캠핑 등 해양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해양스포츠의 중요성은 Brandl-Bredenenbeck & Brettschneider(199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자연과 접촉하는 스포츠 활동 참여는 모험심과 도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사고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의 발전은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강명구와 김우성(2012)도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리나 시설의 개발에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수영마리나, 통영금호마리나, 삼천포마리나, 제주중문마리나, 화성전곡 마리나 등 16개소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3개소의 마리나가 개발될 예정임을 보고하고 있어 해양스포츠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서동환, 김우성, 유흥주(2010)에 의하면 해양스포츠의 미래는 환경적인 요인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양스포츠 시설에 대한 궁극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설된 알펜시아리조트는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YTN, 2012.12.7). 바로 환경적인 성장만을 강조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본보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발전보다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으며,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약 12,80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3,200여 개의 섬, 수심 20m 내 · 외의 해역이 국토

의 1/3에 해당하여 해양스포츠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해양스포츠 발전 및 활성화에 대한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응수, 2006). 이에 대해서 문선호와 조태수(2012)도 해양스포츠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양스포츠 관련 연구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환경적인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현재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형태나 동기, 이에 따른 만족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요인별로 구분지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가에 관한 연구(김준, 2007; 박효영, 2006; 염이경, 2008; 이기청, 2008, 이기태, 2005; 이상진, 2008; 이상호, 2007; 임찬목, 2006; 조태수 & 문선호, 2012), 해양스포츠의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한 marina 시설에 관한 연구(서동환, 2010; 서동환, 김우성, 유흥주, 2010; 정종석, 2004; 지삼엽, 2008), 해양 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해양스포츠 가치관과 인식에 관한 연구(이진모, 신용준, 박진수, 2008; 이근모, 2011)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는 많은 발전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수준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기인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동기 수준에 따른 만족도와 재방문의도는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척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연령대별 집단에 하나의 척도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측정오차를 고려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통계 기법인 t-test검증, ANOVA, MANOVA 등을 사용하여 왔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통계기법들은 측정 오차를 가진 측정변수나 합성변수에 대한 검증기법이므로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김주환 등(2009)이 제시하고 있는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한다면 집단 간 차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재평균분석(LMA : latent mean analysis)은 측정 오차를 통제하고 유형별 평균차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계기법보다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김주환 등, 2006), 더욱이 잠재평균분석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의 형태통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가정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가능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평균분석을 이용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연령대별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및 만족도, 재방문의도의 측정변수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검증을 통해 평가한 후, 연령대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검증함으로써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의 척도는 연령별 기준한 집단에 요인 구조가 동일한가?

둘째,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집단별 평균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은 2012년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요트 등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하여 선정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현장에서 직접 기입·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장소는 해양스포츠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문에 최대한 몰입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공된 곳(간이 테이블 및 파라솔)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남자 177명과 여자 11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연령은 20대 70명(24.0%), 30대 77명(26.4%), 40대 74명(25.3%), 50대 71명(24.3%)으로 연령대별 응답자가 골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 72명(24.7%), 학생 63명(32.9%), 전문직 47명(16.1%), 기타 46명(15.8%)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도 골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양스포츠 참여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192명(65.8%), 1~3년이 53명(18.2%)의 순으로 나타나 앞으로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잠재고객이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높아 본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성 별	남 자	117	60.6
	여 자	115	39.4
	합 계	292	100
연 령	21~30세	70	24.0
	31~40세	77	26.4
	41~50세	74	25.3
	51~60세	71	24.3
소 득	300만원 미만	208	71.2
	300~500만원 미만	59	20.2
	500~700만원 미만	14	4.8
	700만원 이상	11	3.8
교육수준	고졸	44	15.1
	전문대졸	52	17.8
	대졸	175	59.9
	대학원 이상	21	7.2
직업	사무직	72	24.7
	기술직	34	11.6
	전문직	47	16.1
	자영업	29	9.9
	학생	64	21.9
	기타	46	15.8
참여횟수	1~3회	192	65.8
	4~6회	53	18.2
	7~9회	18	6.2
	10회 이상	29	9.9
참여기간	1년 미만	172	58.9
	1~3년 미만	74	25.3
	4~6년 미만	34	11.6
	7년 이상	12	4.1
	합계	292	

2. 조사도구 및 신뢰도 분석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표 2>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문항은 McIntosh & Goeldner(1986), Fodness(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참여동기 관련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

표 2. 설문지 구성내용

요인	설문내용	문항수
신기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신기하다	4
	해양스포츠는 새로운 경험하다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독창적이다	
교육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독특하다	4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창의적이다	
	해양스포츠의 다양한 지식을 전달한다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유익하다	
일탈	해양스포츠 궁금증을 유발한다	4
	해양스포츠는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	
	해양스포츠를 통해 기분전환을 도와준다	
오락	해양스포츠로 인해 일상에서 벗어남	4
	해양스포츠는 생활의 활력을 준다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재미있다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 흥미롭다	
만족	해양스포츠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5
	체험프로그램이 신난다	
	해양스포츠 참가결정에 만족했다	
	해양스포츠 운영에 만족했다	
재방문	해양스포츠의 즐거운 경험에 만족했다	3
	해양테마와 프로그램이 어울렸다	
	해양스포츠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 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고 싶다	

정·보완하여 신기적 동기 4문항, 오락적 동기 4문항, 교육적 동기 4문항, 일탈적 동기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선정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둘째, 만족도는 Cronin, Brady & Hult(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셋째, 재방문의도는 Zeithmal, Berry & Parasurman(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신뢰도 분석

다음의 <표 3>은 각 변수간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실시한 결과이다.

Cronbach's α 는 .641에서 .938에 위치하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연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신뢰도 분석

변수	문항수	20대	30대	40대	50대
신기성	4	.901	.784	.902	.873
교육성	4	.845	.641	.933	.840
일탈성	4	.858	.873	.936	.842
오락성	4	.810	.755	.922	.913
만족도	5	.796	.833	.938	.845
재방문	3	.841	.829	.916	.930

3.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에서는 292명의 표본을 최종표본으로 활용하여 컴퓨터에 개별입력(coding)시키고, SPSS 18.0 version for Window 및 AMOS 2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 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연령별 차이에 대해서 측정오차가 통제된 잠재변수를 이용하여 잠재평균분석(LMA : latent mean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잠재변인의 평균에 대한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다(홍세희, 2007).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동시에 검증할 수 없으며,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순서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김주환 등(2009)의 지적에 따라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 및 정상성 확인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

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잠재평균을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변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의 기준치인 .80보다 모든 변인에서 작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만 신기성과 교육성의 관계에서 .81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은 정상성(normality)이 어겨졌을 경우 실제의 결과보다 χ^2 값이 크게 추정되며, 표준오차가 작게 추정되어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기에 각각의 변인 간의 정상성을 검증하였다. West, Finch & Curran(1995)은 정상성이 왜도가 2이하여야 하며, 또한 첨도가 7이하여야 각 변인간의 정상성을 확보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정상성이 어겨진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참여동기,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측정변수 간의 관계구조가 얼마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분석을 거친 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이 하위

표 4. 상관관계 및 정상성 확인 결과

변수	신기성	교육성	일탈성	오락성	만족도	재방문	신기성	교육성	일탈성	오락성	만족도	재방문
신기성	1						1					
교육성	.206	1					.500***	1				
일탈성	.234	.449***	1				.176	.549***	1			
오락성	.196	.514***	.644***	1			.260*	.447***	.627***	1		
만족도	.054	.392***	.651***	.647***	1		.321**	.365***	.568***	.555***	1	
재방문	.195	.430***	.640***	.645***	.794***	1	.320**	.355**	.524***	.516***	.711***	1
20대 (n=70)							30대 (n=77)					
평균	3.446	3.461	3.407	3.443	3.597	3.743	평균	3.575	3.649	3.964	4.039	3.797
편차	.898	.737	.766	.671	.569	.753	편차	.568	.461	.619	.586	.554
왜도	-.866	-.527	-.669	-.440	-.397	-.254	왜도	-.007	-.133	-.228	-.450	.227
첨도	.667	-.124	.342	.995	1.009	-.265	첨도	1.103	.587	-.070	.114	.125
변수	신기성	교육성	일탈성	오락성	만족도	재방문	신기성	교육성	일탈성	오락성	만족도	재방문
신기성	1						1					
교육성	.818***	1					.549***	1				
일탈성	.492***	.504***	1				.588***	.599***	1			
오락성	.508***	.682***	.664***	1			.555***	.741***	.558***	1		
만족도	.453***	.593***	.435***	.499***	1		.604***	.473***	.650***	.644***	1	
재방문	.387***	.457***	.402***	.360**	.668***	1	.475***	.448***	.502***	.551***	.627***	1
40대 (n=74)							50대 (n=71)					
평균	3.605	3.517	3.997	3.828	3.554	3.649	평균	3.655	3.338	4.099	3.813	3.577
편차	.782	.823	.700	.764	.715	.811	편차	.761	.683	.711	.740	.514
왜도	-.335	-.260	-.178	-.138	-.104	-.123	왜도	-.136	.310	-.405	-.357	-.198
첨도	.946	.382	-.745	-.584	1.131	.470	첨도	-.019	.785	-.219	-.110	-.674

***p<.001, **p<.01, *p<.05

변인을 잘 대표하는지를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동기와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최적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령별 확인적 요인분석

연령	χ^2	df	CFI	TLI	RMSEA
20대	292.432	233	.935	.923	.061
30대	262.607	233	.962	.954	.041
40대	370.192	228	.926	.910	.072
50대	326.687	217	.921	.900	.075

이 연구에서의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LI, CFI, RMSEA 적합도지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χ^2 검증에서 p값($\geq .05$ 가 바람직)이 기각되었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χ^2 검증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χ^2 통계량을 자유도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Normed Chi-Square(NC)를 분석하였다. NC는 20대는 1.356, 30대는 1.127, 40대는 1.624, 50대는 1.505로 나타나 기준치인 3을 초과하지 않아 적합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른 적합도 기준들을 살펴보았다. GFI와 CFI는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대략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RMSEA 값이 .05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면 좋은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이 연구에서 TLI, CFI, RMSEA의 값이 모형적합도 지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모

형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령에 따른 구인동등성 검증

잠재평균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집단에서의 개별 변수들이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배병렬, 2009), 다음 단계로 측정모형의 형태 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이 성립됨을 입증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1)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에 동일한 관측변수가 동일한 잠재변수에 적재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김주환 등, 2009). 이를 위해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을 고려한 후 모형들 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을 고려한 후, 모형들 간의 적합성을 검토하게 된다. 각 집단별로 경쟁모형 중에서 동일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모형을 기초로 집단에 대해 어떤 등가제약도 가지지 않은 모델을 동시에 분석하여 양호한 적합도를 얻는다면 형태동일성 가정은 충족되는 것이다(김주환 등, 2009).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경쟁모형을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TLI값이 .945, RMSEA가 .049로 높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으며, 기저모형(base line)으로 선정되어 연령에 따른 4요인 모형이 동일하게 적합함으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6.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TLI	RMSEA	$\Delta \chi^2$	Δdf
모형1	형태동일성(기저모형)	1161.940	948	.945	.049	-	-
모형2	측정동일성	1679.037	1002	.951	.048	67.097	54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1898.284	1065	.927	.052	219.247	63
모형4	부분절편 및 요인분산 동일성	2217.687	1137	.940	.054	319.403	72

2)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기에 다음 단계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에 형태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하여 각 연령에 요인 적재치가 같도록 동일성 제약을 가한 뒤,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저모형의 χ^2 값은 1161.940, 자유도는 948 이었고, 연령에 따른 요인계수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모형2)의 χ^2 값은 1679.037, 자유도는 1002였다. 측정동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2 값 차이($\Delta \chi^2$) 검증이 가능하다. 그 결과, 기저모형(모형 1)과 측정동일성 모형(모형 2)의 자유도의 차이가 54일 때, χ^2 차이는 67.097로 나타나($p > .05$)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측정동일성 가정은 기각되지 않아 지지되었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그리고 RMSEA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판정하고 있으며(Browne & Cudeck, 1993),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3)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 모형과 각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및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모형 2)과 절편동일성(모형 3)간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 \chi^2=319.403$, $\Delta df=72$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 < .05$) 나타났다. 이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χ^2 검증은 내재된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례수에 민감함 문제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지적(Anderson & Gerbing, 1988; Marsh & Grayson, 1990; Steenkamp & Baumgartner, 1998)과

함께 χ^2 차이 검증이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갖는 지적에 의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TLI와 RMSEA 변화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저모형에 비해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변화가 미비해(김주환, 김은주, 홍세희, 2006) 측정동일성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FI는 다집단 분석에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수로 유용하지 않기에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김민규와 김주환(2006)이 지적하고 있듯이 절편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되지 않으면 절편동일성 가정이 성립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지지되었으며, 절편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잠재평균분석 및 효과크기 분석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가정이 모두 검증되었으므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잠재평균분석은 효과크기(d)를 통해서만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Cohen, 1988; Hong et al., 2003)는 지적에 의해서 다음의 <표 7>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잠재평균분석과 효과크기(d)를 산출하였다. 먼저 잠재평균분석에서 요인의 평균은 직접추정이 불가능하므로, 비교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가정하여 측정집단의 잠재평균을 측정해야 한다(김민규, 김주환, 2006)는 지적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Cohen(198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방법에 따라 d값이 .2는 작은 것으로 .5는 중간수준으로 .8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대를 기준으로 30대는 일탈성($p < .001$)과 오락성($p < .001$), 만족도($p < .05$), 재방문의도($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효과크기(d)에서는 오락성이 매우 큰(.8 이상) 것으로 나타났고, 일탈성은 중간수준(.5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성과 만족도, 재방문의도는 작은 수준(.2 이상)에서 효

표 7. 잠재평균 차이분석 결과

잠재변인	20대(n=70)	30대(n=77)	효과크기(d)	40대(n=74)	효과크기(d)	50대(n=71)	효과크기(d)
신기성	0	.156	.144	.157	.177	.237*	.233
교육성	0	.156	.255	.032	.076	-.137	-.167
일탈성	0	.508***	.727	.359***	.770	.364***	.903
오락성	0	.584***	.888	.642***	.574	.743***	.551
만족도	0	.186*	.352	-.048	-.076	-.003	-.035
재방문	0	.270*	.359	-.072	-.125	.094	.124

***p<.001, *p<.05

과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일탈성(p<.001)과 오락성(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고, 효과크기(d)에서는 일탈성과 오락성이 중간수준(.5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일탈성(p<.001)과 오락성(p<.001), 신기성(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고, 효과크기(d)에서는 일탈성은 높은 수준(.8 이상)에서 차이가 있었고 오락성은 중간수준(.5 이상)에서, 신기성은 작은 수준(.2 이상)에서 효과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잠재평균 분석을 통해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인동등성 검증을 통하여 척도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집단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연령별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측정변수를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구인동등성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모든 연령대에 사용 가능한 척도임을 밝히기 위해서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의 순서로 검증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연령별 집단의 구인동등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재방문의도의 척도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에게 동일한 척도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집단의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최근에 집단의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집단의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함으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분석해야 한다는 연구들(김용준, 조은형, 2009; 문선호, 조태수, 2011; 박상일, 2010; 조운용, 2007; 조창욱, 2009; 정지명, 송병주, 2007; 지민준, 김건우, 2007)을 통해서 본 연구의 절차가 적합하였고 그 결과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에게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를 기준으로 30대는 일탈성과 오락성,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통계적 유의수준과 효과크기에 유의함을 나타냈다. 40대는 일탈성과 오락성이, 50대는 일탈성과 오락성, 신기성이 통계적 유의함과 효과크기의 유의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유식, 전재균, 이상호(2011)의 연구와 강명구와 김우성(2012)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동기에서 친목도모,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교류 등의 요인이 중요함을 보고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참여동기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고,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와 같은 요인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대별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추후 만족이나 재방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연령별 맞춤형의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면 참가자들은 자신감과 욕구, 심취도, 인지수준 등에 긍정적인 영향(한경석, 2009)을 미치기 때문에 해양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특히 50대에서 30대보다 일탈성은 높은 수준, 오락성은 중간수준, 신기성은 작은 수준에서 효과가 크기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기환(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점을 보이는데 연구대상의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차이가 나타난 요인들의 경우 연령이 높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임재현(201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일탈이나 오락, 신기성과 같은 유행, 개성, 확신 등의 요인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해양스포츠 장비 등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참여자들이 내는 비용이 일회성 기준으로 다소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접하는 기회가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기인해 젊은 층보다 연령이 높은 층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개인의 성이나 연령, 수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스포츠 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건이 된다(Riddick,

1985)는 연구가 본 연구의 차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리고 Kotler(1997)는 소비자 시장의 주요 시장 세분화 변수인 연령, 성별, 가족수, 소득, 직업, 학력 등에 따라 소비자 세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차이가 나타난 점에 대한 방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해양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로서 참가자들이 갖게 되는 관점이 바로 해양스포츠 발전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 즉 연령대별 차이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싶다.

추가적으로 해양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분석해 본다면, 해양스포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해양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의 발전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많다는 것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김진국, 2004; 이근모 & 김준, 2007). 바로 해양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한 인프라만 형성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시설확충에만 노력이 기울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해양스포츠가 궁극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해양스포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잠재평균분석을 이용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연령대별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

를 검증하였고, 연구에서 사용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 및 만족도, 재방문의도의 측정변수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검증을 통해 평가한 후, 연령대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수준과 만족도, 재방문의도를 검증함으로써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20대를 기준으로 30대는 일탈성($p < .001$)과 오락성($p < .001$), 만족도($p < .05$), 재방문의도($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효과크기(d)에서는 오락성이 매우 큰(.8 이상) 것으로 나타났고, 일탈성은 중간수준(.5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성과 만족도, 재방문의도는 작은 수준(.2 이상)에서 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0대는 일탈성($p < .001$)과 오락성($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고, 효과크기(d)에서는 일탈성과 오락성이 중간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0대에서는 일탈성($p < .001$)과 오락성($p < .001$), 신기성($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났고, 효과크기(d)에서는 일탈성은 높은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 오락성은 중간수준에서, 신기성은 작은 수준에서 효과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집단들은 일탈성과 오락성과 같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들에서도 긍정적인 유의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 관련자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연령별 차이를 있음을 인지한다면 다각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그에 따른 결과가 해양스포츠 현장 활용에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2. 제 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양한 집단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 설문 문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양스포츠와 관련해 각각의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동기를 중심으로 잠재평균을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집단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집단 간의 특성과 해양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 강명구, 김우성(2012).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이용실태가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9, 401-412.
- 김민규, 김주환(2006). 잠재적 사용자의 성향이 DMB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8(5), 7-36.
- 김우준, 조은형(2009). 노인들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척도의 Multi-Group 및 잠재평균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 669-681.
- 김주환, 김은주, 홍세희(2006). 한국 남녀 중학생 집단에서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243-264.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2007).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재미요인, 참여계약이 몰입도 및 참여 후 지속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진국(2004). 스키장 동계리조트 이용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문선호, 조태수(2011). 골프연습장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간의 다중집단분석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0(3), 409-420.
- 문선호, 조태수(2012). 해양스포츠 활동의 지각된 위험요인과

- 참여의도 관계에 관한 연구: 정보탐색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 171-184.
- 박상일(2010). 골프장 형태에 따른 경기보조원의 직무만족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9(1), 231-241.
- 박효영(2006). 중학생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학습 참여가 성취동기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배병렬(2009). AMOS 17.0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동환(2010). 경인지역 마리나 시설이 해양스포츠 참가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서동환, 김우성, 유홍주(2010). 경인지역 마리나시설이 해양스포츠 참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0, 863-873.
- 성기환(2012). 해양스포츠의 참여태도와 참여동기 및 여가몰입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오용수(2006). 부산/경남지역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상스키 환경(SWOT 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006 춘계 학술세미나. 72-97.
- 염이경(2008). 청소년의 해양스포츠활동 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유식, 전재균, 이상호(2011). 해양레저스포츠 참가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참가자의 만족도, 충성도, 체험활동 선호도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6(2), 265-281.
- 이근모(2011). 해양스포츠 체험참가 초, 중학생의 해양스포츠 가치관과 인식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1), 25-40.
- 이근모, 김준(2007). 해양스포츠 참가자들의 참여동기가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6(2), 117-130.
- 이근모, 윤이중, 강효민, 이재형, 이남피, 이현미(2009).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8(6), 111-124.
- 이기청(2008).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해양스포츠 참여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기태(2005).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상진(2008). 초등학생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와 자아개념 및 사회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 이상호(2007).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의 속성이 참가자의 감정적 반응, 만족, 재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진모, 신용준, 박진수(2008).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2(8), 645-652.
- 임재현(2011).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과 만족 및 선택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찬목(2006).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에 따른 인지능력, 인지수준과 스포츠사회화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대학원.
- 정종석(2004). 한국 요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3(2), 67-79.
- 조운용(2007). 성별에 따른 스포츠의류선택요인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2(3), 103-114.
- 조창욱(2009).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지체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의 잠재평균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6(5), 619-627.
- 조태수, 문선호(2012). 해양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동기, 체험몰입, 참여행동의 PLS 모형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0, 41-56.
- 정지명, 송병주(2007). 성별에 따른 골프의류구매결정 요인과 구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6(5), 341-352.
- 지민준, 김건우(2007). 자기결정성 구성요인들의 성별에 따른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과 구조관계비교. -고등학교 농구 체육특기자 남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559-571.
- 지삼업(2008). 마리나 조성계획과 실제. 서울: 대경북스.
- 한경석(2009).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의 참여동기에 따른 레저 인지수준 및 레저 인지능력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8(2), 197-206.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9(4), 1159-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andl-Bredenenbeck, H. P., & Brettschneider, W. D. (1997). *Sport involvement and self-concept in german and american adolescents*. *Sociology of Sport*. Sage Publicati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

- 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ornia. CA: Sage.
- Cohen, J. O.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ronin, J. J., Brady, M. K., & Hult, G. T. M. (2000). Assessing the effects of quality, value, and customer satisfaction on consumer behavioral intentions in service environments. *Journal of Retailing*, 76, 193-218.
- Fodness, D. (1994).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55-581.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u, L. Z.,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otler, P. (1997).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NJ: Prentice-Hall.
- Marsh, H. W., & Grayson, D. (1990). Public/catholic differences in the high school and beyond data: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 to testing mean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5, 199-235.
- McIntosh, R. W., & Goeldner, C. R. (1986).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and philosophies*. New York: John Wiley.
-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 *Leisure Science*, 7(1), 47-63.
- Steenkamp, J., & Baumgartner, H. (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6), 78-90.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YTN(2012.12.7). 1조 원 시한폭탄, 알펜시아 파산 위기. http://www.ytn.co.kr/_ln/0115_201212071451279154
- Zeithaml, V. A., Berry, L., & Parasurman, A. (1996). The behavioral consequence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60(2), 31-46.

ABSTRACT

Verification of Disparity among Levels of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through Latent Mean Analysis

Mun, Sun-Ho · Lee, Soon-Hwa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verify the level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of each age group, using a latent mean analysis. The purpose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various environments to be considered for marine sports development by verify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and revisiting intention of marine sports participants of each age group, after evaluating their measurement variables through verification of equality in terms of forms, measurement and segments.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were derived. First, compared to people in their 20s, participants in their 30s showed statistical similarities in 'deviance' ($p < .001$), 'entertainment value' ($p < .001$), 'satisfaction level' ($p < .05$), and 'revisiting intention' ($p < .05$). In terms of effect size (d), the 'entertainment value' was very substantial (.8 or above), and 'deviance' showed an intermediate-level of disparity (.5 or above). Meanwhile, 'educational value', 'satisfaction level', and 'revisiting intention', showed a small level of disparity (.2 or above). Second, participants in their 40s showed statistical similarities in 'deviance' ($p < .001$) and 'entertainment value' ($p < .001$), and showed an intermediate-level of disparity (.5 or above) in 'deviance' and 'entertainment value' in the effect size (d). Third, participants in their 50s showed statistical similarities in 'deviance' ($p < .001$), 'entertainment value' ($p < .001$), and 'reliability' ($p < .05$). In terms of effect size (d), a high level of disparity (.8 or above) in 'deviance', an intermediate-level of disparity (.5 or above) in 'entertainment value', and a small level of disparity (.2 or above) was found in 'reliability'.

Key Words : latent mean, latent mean analysis, marine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level, revisiting intention

접 수 일 : 2013. 5. 31

게재확정일 : 2013. 8. 7